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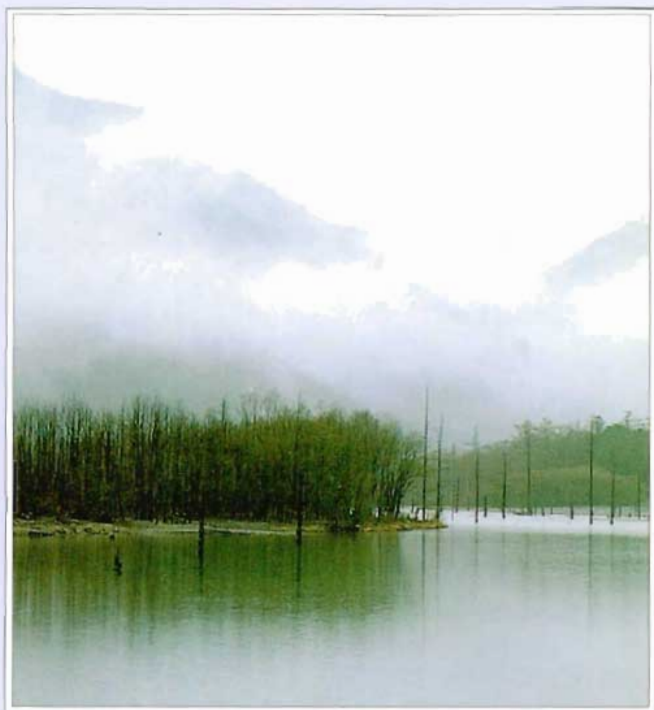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고린도후서 · 갈라디아서 · 사사기



대한예수교
총회
창조회

6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고린도후서 · 갈라디아서 · 사사기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세상의 찌끼들을 훌훌 털어내고



연초에 우리는 참회와 결단의 기도로 한 해를 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덧 다섯달이 지난 지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찌끼들이 적지 않게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일과에 쫓겨 말씀과 기도를 멀리한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장사치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컷전을 때리는 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어느덧 멀어지고,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골치를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의 외침을 들읍시다. 세상의 찌끼들을 훌훌 털어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십시다. 충현의 모든 가정과 구역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 가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99년 6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6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갈라디아서 서론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지향하는 바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개혁자들에게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진리를 가르치는 보고가 되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나 인격으로 도무지 스스로 구원하거나 성화(聖化)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례도 받고(3:27), 성령도 체험했지만(3:5),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특히 할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한 메시지로 복음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5:2-16, 6:12-17).

갈라디아서는 분량면에서 작은 편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 교리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 거짓된 교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1:1. :1, 3. 6:17). 둘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율법과 복음의 의미와 그 관계

를 명쾌하게 규명해 준다(2:16, 3:1-4, 31).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고 그 뒤에 따르는 기독교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5:1-6, 10).

그래서 오래 전부터 종교개혁자들은 이 책을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Magna Carta of Christian)이라고 불렀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밝혀 주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5:1-12).

내용 흐름

서론 / 이신득의에 대한 변호(1:1-2:21)

1. 이신득의의 설명 / 3:1-4:31

1) 믿음의 근거 / 3:1-5

2) 아브라함의 믿음 / 3:6-9

3) 율법에 대한 평가 / 3:10-4:31

4) 간증 / 4:12-31

2. 이신득의의 적용 / 5:1-6:10

1)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 5:1-10

2) 행위와 사랑에 관하여 / 5:13-26

3) 실천과 선행에 관하여 / 6:1-10

결론 / 할례의 동기(6:11-18)

1

(화) 위로

찬송 / 423장 본문 / 고후 1:1-11

‘어떻지요? 힘들어서’. 때로는 누군가의 이런 말 한 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만큼 강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의 힘’을 먹고 또다시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자신과 이 땅에 속한 온갖 종류의 가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기 때문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가 겪은 환난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8-9절). 그런데 그가 그토록 힘겨운 싸움을 다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길을 홀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큰 사망에서 건지신 손길에 의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서곤 했던 것입니다(10절).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입니다. 무려 10번이나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거짓선지자들과의 큰 싸움에서 많이 지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싸움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5절).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힘내어 일어서시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431장 본문 / 고후 1:12-24

살아가다 보면 계획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 결정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용기있는 행위입니다. 혹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처음 계획을 바꾸는 경우라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에 의해서 방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신실함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임의대로 경솔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15-17절).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돕는 자로 남아 있기 위함이었습니다(23-24절). 요즈음 당신은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혹시 변경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나 환경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심으로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도 과감히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뜻이 주님 뜻 안에서 이뤄지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고린도교회 안에는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5-6절).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과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도 바울을 혈통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모종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저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염려된다고 하면서 차라리 저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7-8절). 바울의 영혼 사랑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도 형제 디도의 도착이 지연되자 그의 신상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복음전하기를 잠시 유보하고 마게도냐로 떠날 정도로 동역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었습니다(12-13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박적 의무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영혼 사랑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의식(14-15절)과 더불어 자신의 경험이나 습관이나 기질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17절)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욕심과 성취욕이 아니라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 기도 제목 / ①일에 대한 성취욕을 내려 놓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증명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증명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믿을 수 있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품들에는 보증서가 붙어 있고, 사람도 그 사람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나 기능에 관해서는 증명서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신앙'에 대하여서는 증명서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순회전도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던 초대 교회 당시에 누가 과연 믿을 만한 전도인이고, 누구에게 말씀 증거를 부탁할 수 있겠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전히 율법적인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다니는 자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자각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름있는 사람들로부터 '천거서(추천서)'를 받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것보다 훨씬 더 권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그깟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실상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바울의 사역의 열매요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역자들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위상을 알리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자격증에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입니까?

- ▶ 기도 제목 / ①오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게 하소서.
②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5

(토) 망하지 않는 비밀

찬송 / 512장 본문 / 고후 4:1-15

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버둥하거나, '이미' 소유한 것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만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만족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8-9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5절). 바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으로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비워진 그 안에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7절).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불안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자기 자신, 구멍나고 해진 보자기와 같은 내 자아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긴다고 해도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 주는 이 비밀이 우리들의 머리뿐 아니라 손과 발에 머물도록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잡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은 격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약속이 화려하더라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다른 호소력을 갖지 못합니다. 당장 나를 기쁘게 해 줄 어떤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논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4:18). 맞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소유하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만큼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뿐 우리들을 더 큰 불안과 소유욕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은 보이는 것, 이 땅에 속한 것, 현재에 속한 것에 좌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곧 임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거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9절).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해 진정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생명력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기없는 신앙으로 인해 고민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 있는 자아, 처리되지 않은 죄, 바쁜 생활과 미뤄지는 신앙 훈련에서 생기는 영적 무력감, 짧은 기도와 너무 빠른 포기 등.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데에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 피조물' (17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새 것으로 변한 우리들의 삶은 이제 '화목케 하는 일'에 집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화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골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20절) 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은?

▶ 기도 제목 / ① 진실한 화목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고 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무리 읽어도 아름답고 매력적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들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의 아름다움에 도취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이런 삶은 누가 일부러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더 높은 선, 더 높은 의를 추구하는 삶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추구했던 더 높은 선과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바 ‘우리가 이 직책이 책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 직책이 행여라도 왜곡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매순간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그토록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바 “이 직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1절)가 그 대답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영광스런 동역자라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의식이 바울의 삶을 초지일관되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성도들을 향해 부정과 짝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6:14-7:1). 오늘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루를 잘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벼르고 벼르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누군가에게 심각한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완강하게 반발하면서 충고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보다 더 고맙게 생각될 때도 없을 것입니다. 충고를 듣고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나, 혹은 그들이 공동체 중에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 음란의 범죄 등에 관하여 조목조목 꾸짖는 편지를 보낸 후에, 자신의 편지로 인해 그들이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염려하면서 편지 보낸 것을 잠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8절).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충고를 감사로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 열심을 내는 모습에 대하여 듣고서는 지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디도에게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많은 자랑을 한 바 있었는데 그 자랑했던 바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인해 바울은 한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14절).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근심뿐 아니라, 충고를 듣고 잠시 근심에 쌓였었을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도 불안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감사해 합니다(9-10절).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근심은 결국 진실한 기쁨으로 결실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 근심을 물리치고 주님 뜻대로 근심케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바울은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바울이 헌금을 모은다는 것은 자칫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순회전도인들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해결했는데, 이들 중에는 썩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에 대하여 가짜 사도니, 자기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라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비난이 떠돌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돈과 관련하여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있던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넉넉하지 못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의 모금에 온 힘을 다하여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3절) 헌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힘을 얻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평안한 마음으로 헌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성이 담긴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헌금의 원리는 '평균케 함' (13-15절)입니다. 물론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예배의 행위입니다(9절).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사랑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사랑이 고르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의미를 담아 헌금을 드립니까?

▶ 기도 제목 / ① 저의 드리는 헌금이 진정한 사랑과 예배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 나님에 대한 헌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헌금입니다. 헌금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헌금의 양(量)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헌금 속에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넣은 두 렵돈의 헌금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눅 21:3)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람직한 헌금과 관련하여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5절). 헌금은 억지로 짜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자원함으로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11절). 헌금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6절).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척도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그러운 헌금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8, 10, 11절). 셋째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7절). 헌금의 참된 척도는 외적인 양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처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정한 후에 내야 합니다. 넷째로, 즐겨 내야 합니다(7절). 이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후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신 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반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보통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지만 때로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대에 직면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좋은 모범을 보여 줍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거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여 그가 악하고 말이 시원치 않을 뿐 아니라 떠나 있으면 담대한 것 같으나 막상 대면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 대해 첫째로, 온유와 관용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그분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담대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논쟁이나 기타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 진리에 관한 문제의 경우라면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의 싸움은 육체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싸우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예수를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교사,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중매하는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2절). 그의 가장 기본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합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을 '거짓 사도요 케홀의 역군' (13절)이라고 지칭하며 '초특급 사도들' (5절)이라고 비꼬아 부릅니다. 거짓 교훈의 위험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으며 20세기에 도 분명히 대두되어 나타납니다. 거짓 교훈의 배후에는 뱀, 곧 사단이 있습니다. 뱀은 미혹의 상징이요 사단의 상징입니다. 속임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사도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종종 일반 신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결국이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15절).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일꾼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짓 사도를 경계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짓 사도를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교회로 인도한 친구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거나 이단에게 미혹되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고뇌하게 됩니다. 그와 동일한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칭 큰 사도들'이 내놓은 자랑을 자신의 몇 가지 자랑으로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자신의 유대적 배경이 거짓 교사들에 못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22절).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합니다(23절).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해온 고난을 자못 상세하게술회합니다(23-28절). 육체적 고통, 위험, 파선, 투옥, 율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의 태형인 '사십에 하나 감한 매', 교회를 위한 염려 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자랑이 거짓 교사들과 다름을 보여 줍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업적과 잘난 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30절).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거짓 자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참된 자랑을 회복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은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를 눈 앞에 둔 이 시점에서조차 완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아마 이 물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는 그날에야 비로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온 사단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명의 신자에게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언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에 대해 언급합니다(7절).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육체적인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자들은 간질병이나 편두통 혹은 안질이나 말라리아 열병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와 기쁨을 빼앗긴 것을 인해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숙명처럼 포기하고 체념함으로써 그 체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내가 약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28장 본문 / 고후 12:14-13:13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에 온전히 의탁할 때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재능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을지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성육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셨던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시작케 하셨던 오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보다는 율법을, 사랑보다는 배척을, 교제보다는 독선을 내세우는 쓴 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자,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축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교 회 안에는 중요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선물을 자랑하는 성가대,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 잘 조직된 구역 체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문제 삼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그 죽음의 열매를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 교회 이래로 끊임없이 역사상에 등장하여 교회를 해쳐 왔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복음에서 중요한 몇몇 부분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복음에다 무엇인가를 더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복음에다 더하든지 제하든지 하면 그 순간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교회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역설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의 계시”(1:12)를 통해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복음 위에 자신과 가정을 세우는 중현의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진 나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때때로 주변 사람의 요구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근한 사례를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이방인과 함께 하던 식탁 교제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는 외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게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 15:5). 그리고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교인을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의 상황을 봐서 유리한 쪽을 택한다면 기회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도록 말씀에 비주어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교회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당시의 전통을 따라 구원을 얻기 위해 금식과 금욕,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부담만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롬 3:21-22)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16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옛 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못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임을 고백하고 붙잡습니다(20절). 오늘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나 자신'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과 생각에 앞서 예수님의 뜻을 묻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라는 물음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다(고전 12:3)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 나"(2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5절).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어 수리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맡은 자가 된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율법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그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이방인인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 아직도 신앙이 열은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16절).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430년 뒤에 생긴 것인데, 아브라함이 결코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23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2:16).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이야 말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엡 2:8).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은 새 언약(렘 31:33)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바울 사도는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들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후에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의 갈라디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우상의 종(노예)이었습니다(8절).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복음이 전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초지일관된 신앙을 견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초등학교” (9절), “날과 달과 절기” (10 절)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요, 복음에 종속된 것이요(22절), 속박하는 것이요(2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30절),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이요(22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3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 중에는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 즉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져서 복음에 떠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찾아야 하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살전 5:6).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은혜와 복음에서 멀리 떠난 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고후 11:13-15).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깨어 말씀에 든든히 선 파수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뽑아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신실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본 장의 내용은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온전히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그리스도인의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하여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본장을 그리스도인의 천국대헌장(Magna Carta of the Christian)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본질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그리스도께서 종의 멍에를 지심으로(롬 7:14) 값없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특별히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현저히 욕보이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들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는 자가 됩시다.

-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을 법에서 벗어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에 속한 일과 성령에 속한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자유하는 삶이라는 미명 아래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의 요구(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를 따라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신실하게 맺어가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맺을 9가지의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22, 23절) 우리는 이제 날마다 달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일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의 삶을 증거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바울은 서신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가 가르쳐 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강조합니다(1:6). 특별히 율법 주의자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육체를 율법의 행위에 방임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둔다(7절)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말씀에 입각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4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 더러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14절)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안에서 평강과 주의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16절).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상에 살면서 악인이 번영하고 강성한 것을 볼 때 의인은 마음 속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는 세상이 되었느냐고 한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줌으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깊숙히 관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본문에서도 교만한 한 왕 아도니베섹(6절)의 최후를 우리들에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도니베섹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7절). 악인의 결국이 형통이라면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시 1:4). 하나님은 만사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판단을 따라서 반드시 보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약 5:8). 아도니베섹은 광포를 행하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7절).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악인의 융성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 나님은 본래부터 악과는 함께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레 11:44, 45). 심지어 악의 세력과 피흘리기까지라도 싸워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던 7족속들에 대한 정복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민족 전쟁이 아니라 악을 제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곧 성전(聖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바알과 아세라)으로 말미암아 부식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연고로 해서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와 함께 사는 자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죄악으로 물들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헌신된 일꾼만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 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하나님
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된 자들입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의 신실하
심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입니다(1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
해서 중언부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민 23:19).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
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은 단호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백성들의 허물을 책망해야 합니다(2절).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지라도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세대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은 “밝은 빛” “영광의 빛” 을 선포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벧전 2:9). 빛은 과감하게 어두움을 밝혀 냅니다.
빛은 과감하게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된 빛은 밝음과 영광의 곳,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곳은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기쁨과 영광
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앞서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날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
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을 부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농어촌
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잔 디밭을 가꾸본 경험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기에도 흉하고 잔디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잡초들을 뽑아 보았을 것입니다. 잡초를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는 잡초를 뿌리채 잡아 뽑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잡초의 밑둥을 자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적합한 방법인 것 같으나, 첫번째 방법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지역은 잡초로 뒤덮인 잔디와도 같았습니다. 일 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열의가 식어지면서 이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7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죄악을 보고는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8년간 징계 하셨습니다(8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학정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사 웃니엘을 통해 구 원하시고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허락하셨습니다(11절). 8년의 징계 후에 40년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진노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잡초를 뿌리채 잡아 뽑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 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반복되는 순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앙 생활의 흐름과 비슷한데 즉 '범죄 - 징계 - 회개 - 구원' 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본문에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40년간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지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3:12).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18년 동안 모압에 예속된 생활을 하도록 징계하십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한 일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체의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의 원수를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창 3:15). 에글론을 죽인 후,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모압의 용사들을 일만 명이나 죽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시 3:8).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되시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승리를 이루시도록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6월에도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서문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 복음의 핵심을 가장 포괄적이며 논리적으로 기록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하던 3차 전도여행의 끝무렵에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무르던 AD 57년 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중심구절을 1장 17절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로마서 전체는 죄인된 인간들이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요내용

제1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1:1-8:39)

1. 서론(1:1-17)
2. 정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간(1:18-3:20)
3. 칭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3:21-5:21)
4. 성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6:1-8:39)

제2부 하나님의 의를 변호함(9:1-11:36)

1.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선택(9:1-29)
2. 이스라엘의 현재: 하나님의 거절(9:30-10:21)
3.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11:1-36)

제3부 하나님의 의를 적용함(12:1-16:27)

1. 그리스도인의 의무(12:1-13:14)
2. 그리스도인의 자유(14:1-15:13)
3. 결론(15:14-16:27)

제 1 과

로마서(1) 가려는 이유

찬 송 / 252장
읽을 말씀 / 1:1-17
공부할 말씀 / 1:11-15

먼저 읽기

로마서의 인사말은 특이합니다.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은 대개 서신의 초두에 기록되지만 로마서에서 만큼은 7절로 밀려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언가 빨리 전하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말한 직후 곧바로 2절부터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기 원했던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함께 생각하기

1.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그토록 소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11절)?
2.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되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까(12절)?
3.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13절)?
4.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만드는 절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14-1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기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일차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를 말한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물질이나 영적인 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주위의 연약한 성도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영적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할 때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위치에서가 아니라, 피차간에 주고 받는 겸손의 방식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누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주도하거나 주장하려는 자세로 하지는 않습니까?
3. 바울에게는 항상 '빛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인 덕분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면 나 같은 자가 부름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에게 빛진 자다. 이 빛을 갚기까지는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외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종류의 빛진 자 의식이 있습니까? 그 빛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제 2 과

로마서(2)

증 거

찬 송 / 499장

읽을 말씀 / 1:18-3:20

공부할 말씀 / 2:1-11

먼저 읽기

바울은 복음의 핵심(1:16-17)을 요약한 다음에 곧바로 이 복음과는 전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형편에 대하여 길게 설명합니다(1:18 이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씌어질 버리지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법도를 반대로 바꾸어 패륜을 행하는 죄악,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가증함 등. 이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도 할례도 이 상황을 바꾸어 놓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합니다(2:12-3:20).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2:28).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3:20). 이러한 설명들 중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형편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나님 의식' 이 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홍보는 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2.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멸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4절)?
3.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7-10절)?
4.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가리지 않고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11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롬 14:1), 분쟁하는(고전 1:10) 등 '옛 자아'에 속한 생활을 자주 허용합니다. 신앙고백 외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생활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총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 계속 자신을 확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어떤 사람을 나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해 계속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3.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아직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 3 과

로마서(3)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찬 송 / 383장

읽을 말씀 / 3:21-5:21

공부할 말씀 / 5:1-11

먼저 읽기

이제 바울은 자신이 참으로 말하고 싶었던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3:21-22).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편인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믿음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4:1-25).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었으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5:1)는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믿음으로 의롭다하심 얻은 은총' 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특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특권과 내일의 특권으로 나눈다면 무엇이겠습니까(1-2절)?
2.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4절)?
3.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든든합니다(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7-8절)?
4.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10절 후반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권면합니다. 화평은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샘물처럼 솟아나는 역동적인 생명관계를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하십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떼우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거나 회복해가고 있는 동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2. 환난이 남의 이야기일 때에는 건달 만할 것 같으나 나의 이야기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만큼은 짜증내고 비관하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나 가혹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3.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10절).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명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안일함'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제 4 과

로마서(4)

성령을 따라

찬 송 / 180장

읽을 말씀 / 6:1-8:39

공부할 말씀 / 8:1-8

먼저 읽기

6-8장의 내용을 '...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구분한다면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8장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6:12-13).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강조하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7:6).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을 가르칩니다(8:11).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8:16),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8:26)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이 삶이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증되는 삶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1절)?

2.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2절)?

3.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4절)?

4. 바울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가 어떻다고 가르칩니까?

육신의 생각(6-7절):

육신에 있는 자(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것을 주무기로 하는 사단은 자주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허물을 들추어냄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사단이 당신을 향하여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2. 바울은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 16-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 간의 내적 투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내적 투쟁을 어떤 모습으로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 구역예배순서 ☜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0 과

말씀에 의한 생활

찬 송 / 235장
암송할 말씀 / 요 20:31

목 상

요한복음 20장 30-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 ‘이 책’에 무엇을 기록해 놓았습니까(요 20:30)?
2. 기록해 놓은 것, 즉 ‘이 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5. 성경에 표적이라는 낱말을 사용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6. 표적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8.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11.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적 용

12. 처음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떠올린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말씀에 의한 생활'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